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27> 자신을 굽히지도 높이지도 말라

<선가귀감> 27장에서는 화두를 참구하는 사람은 '본디 자신한테 갖추어져 있는 참마음'을 믿고 공부해 나가야만 한다고 이른다. 참마음을 살피지 않고 경전에만 집착하여 공부하는 사람처럼 '바로 부처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자신을 중생이라 낮추어 물러나서는 안 된다고 한다. 그렇다고 참선이 최고라고 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무턱대고 자신을 부처님이라고 높여서 도 안 된다고 한다.

願諸道者 深信自心 不自屈不自高
바라건대 공부하는 사람이면 모두 자신의 참마음만 믿을 뿐, 스스로 자신을 굽히지도 말고 높이지도 말지어다.

서산 스님은 이 단락을 다음과 같이 풀이한다. "이 마음은 평등하여 본디 범부와 성인이 따로 없는 법이다. 이치가 그렇지만 사람 가운데에는 여러서는 범부도 있고 깨진 성인도 있다. 스승의 가르침에서 출연 '참나'가 부처님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는 것을 깨치는 사람은 '단순에 깨치는 사람(頓)'이니, 이것이 스스로 자신을 굽히지 말아야 할 까닭이다. 이는 마치 '본래 한 물건도 없다'라고 한 육조 스님의 말과 같은 뜻이다. 부처님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난 뒤 나쁜 버릇을 없애가며 범부가 성인이 되는 것은 '차츰차츰 무아 나가는 법(漸)'이니, 이것이 스스로 자신을 높이지 말아야 할 까닭이다. 이는 '쉬지 말고 부지런히 번뇌를 없애라'고 한 신수 스님의 말

과 같은 뜻이다. 자신을 굽히는 경전을 보는 이들의 병통이고, 자신을 높이는 참선하는 사람들의 병통이다. 경전을 보는 이들은 선문(禪門)에 부처님 세상을 깨달아서 들어가는 비결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방편에 깊이 빠져 '참 아니면 거짓'에 따라 집착하여 '자신의 마음을 바로 보는 수행'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보배만 헤아리고 있으므로 참 공부에서 스스로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 것이다. 참선하는 사람들은 '경전 속에 나쁜 버

참마음이 곧 부처님인줄 알고 물러남 없이 공부에 전념해야

릇을 끊어가는 바른 길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으니, 나쁜 짓을 저질러놓고도 부끄러운 마음을 내지 못한다. 공부한 정도가 유치해도 '법에 대하여 공부했다는 오만한 마음'이 많으므로 입 밖에 내뱉는 말이 터무니없이 교만하긴 하다. 이 때문에 올바른 뜻을 알고 마음을 닦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굽히지도 않고 높이지도 않는다." 서산 스님은 다시 덧붙여 말한다. "스스로를 굽히지도 않고 높이지도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공부를 시작하는 첫 마음에 바다처럼 넓고 큰 부처님의 세상이 들어있는 것'으로써 말하자면 모든 것이 '믿는 마음 한자리'이다. 그러나 '보살이 공부하여 성불(成佛)한 결과를 가져온 그 과정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살펴보는 것'으로써 폭넓게 말하자면 보살이 인(因)에서 과(果)로 가기까지 '55단계의 수

행 과정'이 있다는 것이다."

'공부를 시작하는 첫 마음에 바다처럼 넓은 부처님의 세상이 들어있는 것'이라고 번역한 인과과해(因果果海)는 '인(因)에 과(果)가 갖추어져 있다'라고 직역할 수 있다. 인은 시작이고 과(果)는 결말인데,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니, 작은 인속에는 드러날 많은 과가 이미 들어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복숭아씨를 심으면 나중에 씨앗이 커서 복숭아꽃이 피고 먹을지스러운 복숭아가 주렁주렁 달리는데, 시작은 작은 씨앗이었지만 이미 그 씨앗 속에는 해마다 많은 꽃을 피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결과물이 들어있는 것과 같다. 이처럼 공부할 때도 자신의 참마음이 부처님인줄 알고 화두를 쟁겨가다 보면, 이 공부 속에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부처님의 세상으로 들어갈 날이 있을 것이다. 굳이 자신을 중생이라고 낮추고 이 공부에서 물러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복숭아씨가 해마다 많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려면 오랜 시간에 걸쳐 적절한 양의 물과 태양의 빛이 필요하다. 꽃과 열매는 그 과를 가져오는 씨앗과 적절한 양의 물과 태양의 빛이란 인(因)이 있어야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어떤 결과물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그 결과물을 가져오게 하는 원인이 반드시 있었다는 것을 철저히 살펴보는 것, 이것이 과절인원(果徹因源)이다.

보살이 공부하여 성불한 결과를 가져온 그 과정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살펴본다면 수많은 단계가 있겠지만, 이것을 대략 정리하여 <능엄경>에서는 십신(十信), 십수(十住), 십행(十行), 십회향(十廻向), 사가행(四加行), 십지(十地) 55단계로 나누고 있다. 참선이 최고라고 하면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법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떠없이 높이지 말고 공부의 인과를 분명히 알고 공부해야 할 것이다.

참마음을 알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설하고 실천할 수 사람만이 훌륭한 선사이면서 참다운 법사가 될 수 있다.

■ 원승 스님(송광사 인월암)

행복동 사람들

웰다잉(well-dying)
배종훈 (bjh4372@hanmail.net)

아이고~ 아이고~
어머나...
아이고~

여기가 답답해.

휴~우. 그 언니가 그렇게 저 세상 갈지 누가 알았겠어?

누가 아니라, 이전 남 일이 아니니까...
휴~우~

두 분은 무슨 걱정이 많아 그리 한숨을 쉬세요?

아, 스님. 스님도 고생이 많으셨죠? 그냥 이제 죽음이 남에게 가리지 않네요.

후회하. 뭐가 걱정이에요? 언제든 잘 죽을 수 있도록 살면 되지요.

네에? 잘 죽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앞에는 실수가 있지만 죽으면 실수가 있을 수 없지요. 그러니 하루하루...

후회없이 잘 살아야 한다. 현실에 최선을 다 해라 그 말씀이요?

실수로 죽을 순 없지요. 잘 죽을 수 있도록 후회없이 사세요.

cafe.buddhapia.com/community/happydong

한입에 소옥~ 불교 상식

삼매(三昧)

어떤 한 가지 일에 깊이 심취해 있는 상태를 일상에서 '삼매 경에 빠졌다'고 하지요? 긍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로, 상태를 칭찬할 때도 사용됩니다. 삼매(三昧)란 말은 불교용어 삼마지(三摩地)에서 유래합니다. 삼마지란 '마음을 한곳에 둔다' '마음을 한곳에 집중시켜 흐트러지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수행을 잘하면 마음이 분산되지 않고 어지러운 생각들이 사라져 편안하고 고요 해짐을 삼매라고 하지요. 수행이 삼매의 단계에 이르면, 올바른 지혜가 생겨 진리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불교는 삼매를 중시하죠.

석가모니 부처님도 삼매를 통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법화경> 서품에는 "부처님이 무량의처삼매(無量依處三昧)에 들었을 때 여섯 가지의 상서로움이 있다"고 전합니다. <법화경>에서는 또 "부처님이 해인삼매 속에 경전을 설했다"고 합니다. 해인 삼매를 말 그대로 해석하면, '바다도장의 삼매'죠. "큰 바닷물이 모든 것을 포섭하는 것 같아서 해인이라고 한다"고 해석할 수 있지요.

김철수 기자 in-gan@buddhapia.com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102)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2부 48강 경봉 스님의 금강경

선지식들은 다들 나름의 색깔을 가지고 있다. 어떤 스님은 근엄하고, 어떤 스님은 소탈하며, 어떤 스님은 사교적이고, 어떤 스님은 늘 진지하다. 경봉 노사는 늘 웃고 있는데, 그것은 자기 안의 자신과 대면한 속스러움과 여유에 따른다.

"문(問): 웃, 웃정한 주인공아 이제서 만났으니, 왜 이렇게 늦었는고. 답(答): 허허, 내가 그대 집에 있었건만, 그대 눈이 밝지 못해 이처럼 늦었네."

자신과 만나고 나면, 역시(如是)라.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향해 정대하지 않는다.

"영리한 주인공, 주인공아, 그대 말이 '이와 같고 이와 같으니', 오늘, 날씨는 따뜻하고 바람은 부드러우며, 산 층층(山層層) 수 잔잔(水潺潺)하니, 산꽃은 웃고 들새는 노래 부르니, 손을 마주 잡고 태평거나 같이 불러보세."

아부도 <금강경> 6장에서 같은 노래를 불렀다. "내 집안의 보물을 얻고 나면, 지지 귀는 새, 산에 핀 꽃들이 온통 봄의 찬양임을 알게 된다(汝父:若能信得家中寶,啼鳥山花一樣春)." 내 손 안에 천하의 보물을 쥐었으니, 나는 더 이상 해야 할 일이 없다. 절학무위한도인(絕學無爲閑道人), 부처랑상불구진(不除妄想不求眞: 謬道歌)!" 공부도

작파하고, 할 일도 없는 한가한 사람, 그는 망상을 제거하겠다고 부실했지 않고, 진리를 구한답시고 용을 쓰지 않는다."

그는 어디 있는가
웃음은 대개 여유에서 온다. 그것은 '더 이상 추구할 목표도, 씨름해야할 문제도 없다'는 것의 증거이다. 아직 더 나아가야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얼굴은 긴장되어 있고, 때로 신경질적이다. 나는 스님들의 법력을 얼굴의 웃음기에서 찾는 고약한 버릇을 가지고 있다.

자신 속에 있는 무가보(無價寶)를 얻은 사람은, 두두 물물이 다 평등(平等)하고 원만(圓滿)하다는 것을 알기에, 더 이상 약좌할 것이 없다. 그는 악인들을 비난하거나 중생들을 타박하지 않는다. 다만 그들에게 연민을 느끼고 어떠한 도와주려고 애를 쓴다.

그러나 말이 자신과의 대면이지, 그 주인공에게는 얼굴이 없다. "법상(法相)은 없다!" 그 소식을 영축산(靈鷲山)에 빚낸, 스님의 절정을 보라.

"영축산이여, 유시(有時)에는 구름도 일고, 유시에는 안개도 끼고, 유시에는 비도 내리고, 하여도, 구름이 일어도 머무름이 없고, 유시에는 만화(萬花)가 방창(芳暢)하

고 새들도 지저귀지만, 이것도 사라져 버린다. 이것이 영축산의 진상이다. 산도 이러 한데 어떤 글이나, 말을 남겨둘 것도 없는 것이다. 말과 글을 남겨둔다는 것은 망정(妄情)이지 영축산의 진상이 아니다. 영축산의 진상이 아닌 것을 두려는 것이 망상이요, 어리석은 일이다."

"선령스런 독수리"는 자신의 얼굴을 산봉우리 저쪽에 숨기고 있다. 그러나 불용취법(不獲取法), 작은 지식을 진리의 이름으로 행세하지 말라. 노사의 웃음과 관용은

을 가능하는 버릇이 있다.

스님의 법문에는 시정의 한담과 설화가 은하처럼 흐르다가, 유머와 예화가 어느덧 뒤섞인다. 놀라와라, 거기 소리소문 없이 삶과 불교에 대한 심오한 통찰이 담겨 있다. 스님의 법문 가운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하나를 소개한다.

"산두 박첨지라는 허수아비놀이가 있었다. 동네 한 복판에 기둥을 네개 세우고, 포장을 치고 나서, 그곳에서 수많은 허수아비들을 움켜져, 탈바가지 뒤집어쓰고 놀게 한

가벗고 나오는데, 자지가 어쩌나 크던지, 제 키보다 큰 그것을 어깨에 올려메고 나와서 그것으로 이리치고 저리치면, 춤추고 놀던 놈들이 쫓겨 어디로든 숨고 사라진다. 법사고 사자고 간에, 이 물건으로 치면 다들 사라지니 사람들이 웃고 아담이다."

스님은 이것이 불법(佛法)의 심오한 법문 중의 법문이라고 찬탄한다. 여기 산대의 네 기둥은 인간과 세계를 구성하는 지수화풍(地水火風)을 상징하고, 거기 노는 허수아비들은 인생의 율고 웃는 모습들을 빚내고 있다.

산봉우리에 몸 숨긴 독수리

SHIM

다. 처음 부처가 혼들흔들 지나가고, 다음 털보가 지나가면서, '어, 오늘 사람 많이 모였다'고 한다. 인간들이 입도 맞추고 노는 장면이 있고, 사자 호랑이가 놀다가, 스님네들이 나와서 절을 지어놓고 의젓하게 법상에 올라 법문을 하기도 한다. "다만 법문의 지혜만 지위라, 별로 성현의 지혜란게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근기와 눈높이에 맞게, 설해 주는 실력으로 그의 수준

이 허수아비들의 연출은 그 장막 밑에 털보가 지나가면서, '어, 오늘 사람 많이 모였다'고 한다. 인간들이 입도 맞추고 노는 장면이 있고, 사자 호랑이가 놀다가, 스님네들이 나와서 절을 지어놓고 의젓하게 법상에 올라 법문을 하기도 한다. "다만 법문의 지혜만 지위라, 별로 성현의 지혜란게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근기와 눈높이에 맞게, 설해 주는 실력으로 그의 수준

인행들의 동작을 장막에 비추고, 거기다 번사의 입담을 곁들이면, 음모와 전정, 사방과 이별의 드라마가 실감나게 펼쳐진다.

우리네 삶이 그렇다. 이렇게 책도 읽고 컴퓨터도 치고, 근엄하게 정치도 하고, 사기도 치고 당하기도 하고, 율기도 웃기도 하는 회노애락 중중무진의 꼭두각사기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하고 있다.

사람들은 대개 이들 꼭두각사들을 자신과 동일시한다. 자아(自我) 혹은 페르소나(persona)에 익숙하다 보면, 문득 "나는 어디 있지"하고 돌아보는 때가 온다. 자기 아닌 것에 자신을 맡겨버린 이 일상화된 비극을 현대철학과 종교는 '소'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그럼 주인공은 어디 있는가. 불교는 이 물음을 끌어안고 해결을 모색하는 개인화(individualization)의 순례도 등장이라고 할 수 있다.

책을 덮고 길을 나서라
책을 열어야 길을 확인할 수 있지만, 책을 덮어야 길을 나설 수 있다. "말이 너무 길고 많으면 재미가 없다... 능급이나 배를 한 개 다 먹어야 맛을 아는 것이 아닌 것처럼..."

관건은 역시 삶이고 경행이다. 말을 이해하고, 소식을 접하려면 직접 격외(格外)의 실참을 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 스님은 말한다. "과수원의 과목 키우는 법을 배우는데, 칠판 강의를 듣거나, 말과 글로써 배우더라도 자기가 직접 과수원에서 이십삼년간 과목을 키워보면 선생에게 배운 그 이상의 것을 자기도 모르게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된다."

수직작주(隨處作主, 立處皆眞) 우리가 각자의 보고서를 준비해야 한다. 때가 되면, 우리 자신이나 혹은 저 위의 누군가를 탐입없이 보려고 손을 내밀 것인 즉...

■ 한국학중앙연구원
cafe.buddhapia.com/community/plan_14